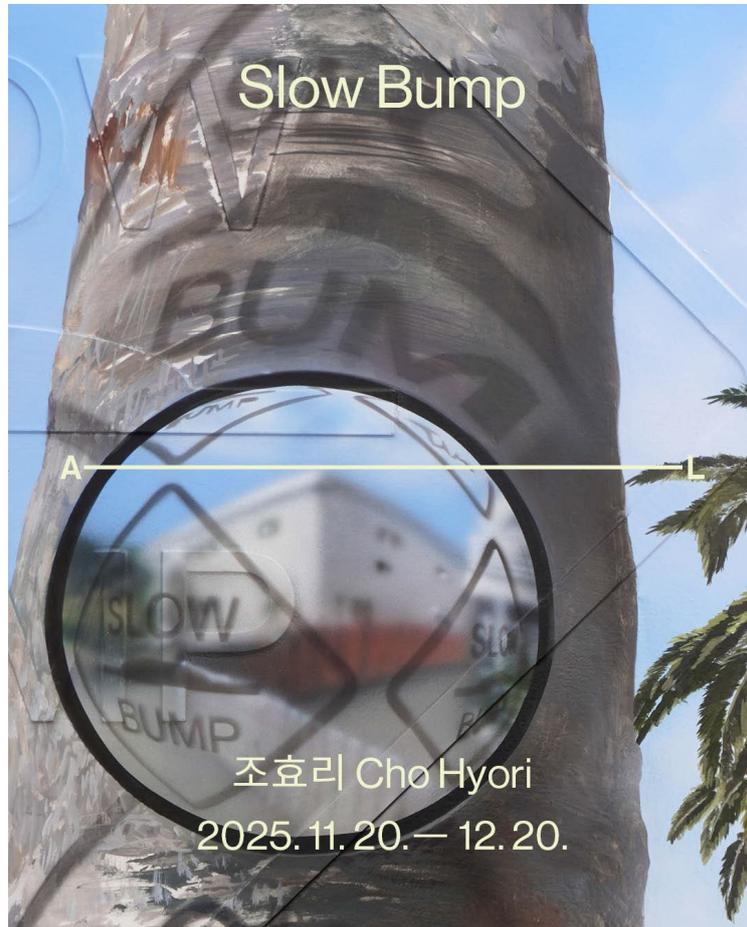


[Press Release] 총 11쪽

## 《Slow Bump》



-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조효리 개인전
-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가고 조율해나가려는 작가의 의지가 작품과 전시 곳곳에 드러난다.
- 전시명 ‘Slow Bump’는 부드럽게 넘어가기의 기술로, 작가가 느낀 좋았던 순간들과 감정을 천천히 붙잡으려는 시도를 비유한다. 보도블록, 울타리, 표지판, 고양이의 잠 등은 우리 시야에 들어와 발걸음을 붙잡는다.
- 기존 작업에서 에어브러시를 주된 매체로 사용해왔으나, 이번 전시에서는 붓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물성적이고 서정적인 화면을 구축하였다.
- 전시 공간 1층에는 회화 작품 5점이, 2층 전시 공간에는 회화 10점이 전시되어 있다.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Slow Bump》

참여 작가: 조효리

일 정: 2025년 11월 20일(목) - 12월 20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관 시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이트: [www.a-lounge.kr](http://www.a-lounge.kr)

\*Press Inquir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mailto:hye@a-lounge.kr), 02-395-8135)

## ○ 참여 작가 주요 약력 및 간단한 전시 소개

조효리 (b.1992)

조효리 (b.1992)의 작업에서 우리는 언제나 ‘떠도는 눈’(작가 작업노트, 2023)의 존재를 발견한다. 이 눈은 하나의 대상을 마주할 때 그 대상이 속했었거나 속해 있거나 미래에 속할 수 있을 법한, 가능한 혹은 상상 가능한 모든 차원의 시공간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렇기에 조효리의 평면은 면의 앞, 뒤, 가장자리 구석까지 이미지의 전방위적 속성을 재현하는데 동원된다. 이 ‘떠도는 눈’은 한편 작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허락하는 지평에 국한되지 않고, 사물과 공간을 지각하는 데 사용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툴이 지닌 기계적, 도구적 눈의 역량을 포괄, 포섭하는 눈이며, 종종 대상의 독립적 상태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 발생하는 속성의 변화까지 가능할 의지를 가진 눈이다. 이는 마주한 대상을 끝까지 이해하려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고, 작가가 사는 지각의 세계-어떤 과거는 끝없이 재사유하고, 오지 않은 시간에 때로 가깝게 다가서려는-에서 발현된 작업의 양상일 수도 있다. 조효리의 작업은 ‘보는’ 행위의 지평과 범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음을 던지는 한편, ‘최대치로’ 본 결과를 ‘납작한’ 평면에 재현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효리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평면을 전공했다. 갤러리 아노브, 서울(2021); 갤러리 앤에이, 서울(2020)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히스테리아 : 동시대 리얼리즘 회화», 일민미술관, 서울(2023); 《윈도우 리컨스트럭션»,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2023); 《Bring to Light», 프롬프트 프로젝트, 서울(2023); 《물거품, 휘파람», 두산 갤러리, 서울(2022); 《용도의 쓸모 - 사용자 친화적», 을지예술센터, 서울(2022); 《Another Asian Artist», 더 샵하우스, 홍콩(2022); 《The Seasons», 디스위켄드룸, 서울(2022) 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 상업 공간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 ○ 전시 내용

조효리의 개인전 《Slow Bump》가 오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4주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에이라운지에서 열리는 조효리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조율해 나가려는 작가의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전시명 ‘Slow Bump’가 지시하듯, 이번 전시는 작가가 밴쿠버와 LA, 서울을 오가며 마주한 좋은 순간들과 그때의 감정을 천천히 붙잡으려는 시도를 은유한다. 보도블록, 울타리, 표지판, 잠든 고양이 등은 시야에 들어와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1층 전시장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울타리 형태의 구조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관람객은 울타리의 문틈 사이로만 작품을 볼 수 있으며, 해당 작품을 자세히 보려 가까이 다가가면 ‘KEEP GATE CLOSED’ 문구가 적힌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 출입을 통제하는 기호는 역설적이게도 열려 있는 문 앞에서 관람객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드는 상징적 이미지로 전환된다.

○ 전시 서문

「(De-acceleration)」

김진주(비평가)

1

한참을 달려 온 끝에서야, 비로소 너무 빨랐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속은 자유의 징표처럼 보인다. 길고 긴 터널을 몇 번이나 지나고 신호등 하나 없이 쪽 뺨은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동안, 세상은 보이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진다. 바람을 가르며 사라지는 풍경들, 번짐 속에 삼켜진 거리들. 그 모든 건 무심한 속력 앞에서 희미하다. 천천히, 느리게, 서행하기. 국도에 진입해 과속방지턱을 만날 때, 지난 시간들의 속도를 반추하고 지금 그 앞에서 줄인 새로운 속도를 마주한다. 감속의 자리에 도달해서야, 지나쳐 온 세계가 나를 향해 돌아온다.

가속은 인간을 자신이 사는 세계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켰다.<sup>1</sup> 지난 십년간, ‘가속주의’는 진보를 그려 내는 언어이자, 인간의 성장을 과시하는 은유처럼 기능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확장의 가능성보다 소진된 몸이었다. 이는 정서적, 신체적 다템은 물론 사회적 관계, 소통의 문제에 서마져 마모된 우리를 발견케 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해내는 행위는 능력의 향상이 아닌 능력의 과잉이었다. 기술이 약속한 무한한 진보(우리는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그에 발맞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처지(이 또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비관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삶의 생리가 되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는 의지는 점점 흐려졌다. 그런 헛헛한 마음에 무엇이 우리의 생기를 다시 북돋울 수 있을까….

2

조효리의 회화가 만드는 화면은 공간과 시간을 다룬다. 그는 지금까지 3D 프로그램에서 광원, 바람, 중력의 수치를 조정해 가상의 장면을 설계하고, 이를 캔버스 위에 물감, 에어브러시, 기름으로 다시 구현해 왔다. 그동안의 중심축이 무한히 확장, 변형되는 가상공간을 상상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전시는 실제 경험과 기억의 층위에서 출발한다. 가상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실체에 눈을 옮긴 것이다. 이 전환은 꽤나 의문스럽고도 신비하다. 그것이 돌발적인 선회라기보다 이미 그의 시선 깊숙한 곳에 잠재해 있던 현실을 받아들이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즉, 그에게 도래한 전환은 역설적이게도 근원을 들여다보기의 맥락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시의 이미지들은 만들어 낸 장면보다 지나온 장면에서 기원한다. 그는 예측의 시간을 잠시 접어 두고, 회상의 시간을 살핀다. 여기에는 그가 설정한 장소적 배경이 전제되는데, 이는 회화의 시공 속에 현실의 시공을 사유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조건이 된다. 지난해, 조효리는 밴쿠버, LA, 서울을 경험했다. 밴쿠버의 시린 추위에서 LA의 온화한 햇빛까지, 비행기로 세 시간,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보낸 이후의 수많은 시간들. 차분

<sup>1</sup> 하르트무트 로자, 『소외와 가속: 후기 근대 시간성 비판』, 강명희 옮김, 앨피, 2020, 118-139쪽.

히 밟아 나간 여정에서 그는 소박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들을 회화의 시작으로 삼아 보았다.

전시 제목 《Slow Bump》는 ‘부드럽게 넘어가기’의 기술이다. 이는 멈추라는 지시가 아니라, 일 보 전진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 보라는 요청이다. 최근의 회화에서 조효리는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매끈한 시야, 예컨대 블렌딩(blending)과 렌더링(rendering)의 결긋감을 그대로만 모사하는 대신, 보도블록, 울타리, 표지판, 차창, 고양이의 잠, 물방울의 맺힘 같은 아주 사소한 저항들로 일부러 시야를 걸리게 만들었다. “좋은 것은 그냥 스치지 못한다.”<sup>2</sup>라는 그의 갑작스럽고도 유치한 고백처럼, 이곳의 회화에는 단순하지만 가장 사적이고 충만한 의미에서의 ‘좋은’을 지나치지 않고 느끼게, 천천히 붙잡으려는 시도가 녹아들어 있다. 그렇게 포착된 장면들은 캔버스로 옮겨졌고, 어떤 부분은 에어브러시의 얇은 층으로 쌓였으며, 어떤 부분은 기름 섞인 유화의 마찰로 남겨졌다. 번짐과 두께, 의도적으로 내버려둔 투박함이, 화면에 담으려는 속도를 빚낸다. 끊임없이 연산되는 디지털의 시간, 빛과 표면, 기름이 부딪혀 파생되는 물리적인 시간 사이에서 이곳의 회화는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이, 조효리의 여정을 따라간다.

### 3

그가 바라는 바대로, 천천히, 그의 속도에 맞추어 전시를 들여다보자. 1층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건 목재 울타리다. 이는 조효리가 LA 주택가 어딘가에서 마주한 풍경의 한 요소로, 자신이 달려온 과거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골몰하게 만든 구조물이자 가림막인 동시에 입·출구다. 실제 이 울타리는 닫혀 있었으나, 그는 유머를 발동해 마치 이것이 문인 양 슬쩍 한편을 갈라 젖혔다. 자신이 가는 길을 막아 멈춰 세우는 방해물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또한 자신이 마음껏 전복시켜 버릴 수 있는 대상임을 믿으면서. 이 사소한 제스처에서 우리는 서서히 열려 가는 세계, 달리 말해, 가속화된 체제 속에서 다른 속도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마주한다.

문틈 너머에는 ‘출구(exit)’ 표지판이 붉게 빛나는 강렬한 소실점의 회화가 두 점 걸려 있다. 저 멀리, 더 멀리... 바깥으로 뻗어가고 싶게 하는 공간감으로 가득한 그림 안에 그려진 것은 조효리가 LA에서 목었던 아기자기한 숙소다. 네모반듯하게 쳐진 내부의 또 다른 울타리, 복도와 중정은 우리를 끝없는 외부로 향하게 하다가도, 내부를 빙글빙글 돌게 하며, 이 전시장에 쳐진 울타리 안쪽으로 되돌아오게 만든다. 이때 “KEEP GATE CLOSED”라 적힌 울타리의 경고문은 문자 그대로의 지시에서 벗어난다. 출입을 통제하던 기호가 슬며시 열린 이곳을 지나치지 못하게 만드는 본능을 건드릴 이미지로 전환된다. 그렇게, 울타리와 세 점의 그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이 공간을 지시하고 또 지시한다.

2층에 오르면 한 번 더 그 울타리를 만난다. 세 점의 캔버스로 구성된 회화 〈Five-way Intersection〉은 사실 1층에서 본 목재 울타리 작업의 원형인 장소를 그리고 있다. 좌우에 보이는 주택들처럼, 멀리멀리 뻗어갈 것 같은 주거지 군락이 화면 중앙을 가로막는 울타리로 인해 차단되었다. 그러나 그 아래,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갈라진 세 개의 도로가 흔적처럼 남은 것이 보인다. 화면 앞에는 제스모나이트로 찍어낸 보도블록이 놓였다. 새로

<sup>2</sup> 조효리, 작가 노트, 2025.

운 도로가 추가되었고, 이제 이곳—그림 속 공간과 그림 밖 공간—은 오거리라는 총합으로 ‘연결’된다.

4

달힌 울타리를 변주한 작업들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멈춤과 전진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 보다 능동적인 바라보기를 가능하게 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여행 중간중간, 조효리가 문득 멈춰 바라본 장면이 이번에는 회화적 구조의 주축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목격되고 재현된 풍경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지시문으로 변한다. 롱비치 해변에서 마주한 꽃과 바다, 모래의 낮선 조합은 화면 위에 울퉁하게 부착된 ‘Slow Bump’와 그 곁의 줄무늬를 통해, 공간과 서사로의 진입을 잠시 멈추게 한다(〈Slow Bump〉). 트럭과 그 위의 커다란 두 강아지는 압축-변형되어 있고, 차 문에는 실루엣처럼 새겨진 강아지의 윤곽과 반사된 나무들이 초현실적으로 나타난다(〈Buddy〉). 공룡을 닮은 나무는 정말로 공룡처럼 기묘하고 유쾌하게 그려지고(〈Tree Tunnel〉), 자전거와 고양이는 그 사이를 오가며 재현된 풍경 속으로 스며든 화가의 진실된 손길을 드러낸다(〈Bike〉, 〈Sleeping Cat〉).

한편, 〈Mirror on Palm Tree〉, 〈To Telescope〉, 〈Set time automatically "off" \_at the dock〉, 〈Pass by\_2025〉, 〈Fasten seat belt while seated〉는 조효리가 꾸준히 탐구해 온 ‘지각의 오작동’을 다시금 꾸며 낸다. 거울, 행성, 물방울, 좌석 등은 모두 세계의 반대편을 비추면서 동시에 차단하는 막으로, 공간 속으로/밖으로 오가려는 우리의 상상력을 투사한다. 반사와 투명, 겹침과 막힘의 표면 위에서 세계는 단일한 소실점을 잃는다. 시선의 “외분점”<sup>3</sup>, 즉 화면 바깥의 세계와 화면 안의 세계가 교차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안정한 지각의 구조 속에 실제의 풍경—여행에서 마주한 하늘, 네온사인, 물결, 피어(pier), 빛 같은 현실의 단서들이 병치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화면들은 반영과 차단, 깊이와 평면, 현실과 가상이 중첩되는 접면에서 ‘보는 행위’의 자리를 다시 자각하게 만든다.

5

그의 화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들, ‘KEEP GATE CLOSED’, ‘Set Time Automatically “off”’, ‘SLOW BUMP’는 경고가 아니라 지각의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달힌 문을 살짝 여는 행동, 시간을 자동으로 맞추지 않겠다는 선택, 속력을 줄이라는 요구는 가속된 세계 속에서 세상을, 나아가 나 자신을 바라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표지판의 명령은 해체되고, 그 자리에 주체적인 시선이 들어선다. 멈추기, 머물기, 조율하기, 다시 보기. 그렇게 세상을 향한 시야는 넓고 깊어지며, ‘나’와 세계는 공명하는 관계로 다시 맺어진다. 하르트무트 로자가 말했듯, 근대성의 핵심인 가속이 우리를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속을 통해 공명을 회복

<sup>3</sup> 안소연, 「물체는 평면들로 덮여 있어서,」, 2021, 1쪽.

# A-L

하는 것이다.<sup>4</sup> 공명과 회복. 그것은 어쩌면 조효리가 자신을 둘러싼 시간과 공간을 ‘돌보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런 반추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 작업들을 불러낸다. 보도블록이 된 제스모나이트 표면에는 이전 회화에서 다뤘던 레이저 커팅의 잔편이 눌러 찍혀 있고, 2020년에 처음 작업으로 등장한 문장 ‘Set Time Automatically “Off”’는 선언처럼 호출된다. 한때 화면의 일부였던 문양과 도형들은 보도블록의 요철로 변환되어 시간의 파편으로 남고, 주체성을 강조하던 문장은 현실의 시공을 파악해 보려는 새로운 다짐으로 새겨진다. 이미 지나간 세계를 그려 보기. 그리고 기꺼이, 이 시간과 공간을 마주하기. 그 속에는 속도를 늦춘 다음 전진하려는 이의 낙관이, 의지가, 생기가 엿보인다. 또 한참을 달려가겠지만, 잠시간은 그럴 것이다.

---

<sup>4</sup> 하르트무트 로자, 『공명 사회: 위기의 민주주의 경청에서 답을 찾다』, 유명미 옮김, 니케북스, 2025.

○ 대표 작품



*Five-way Intersection*

2025

Acrylic, oil on canvas

227.3 × 145.5 cm (3ea)



*Set time automatically "off" \_at the dock*

2025

Acrylic, resin on wood, stainless steel frame

42 × 30 × 2.5 cm



*Mirror on Palm Tree*

2025

Acrylic, oil, paper on canvas

145.5 × 97 cm



*Fasten seat belt while seated*

2025

Acrylic, paper on canvas

130.3 × 162.2 cm

# A-L

○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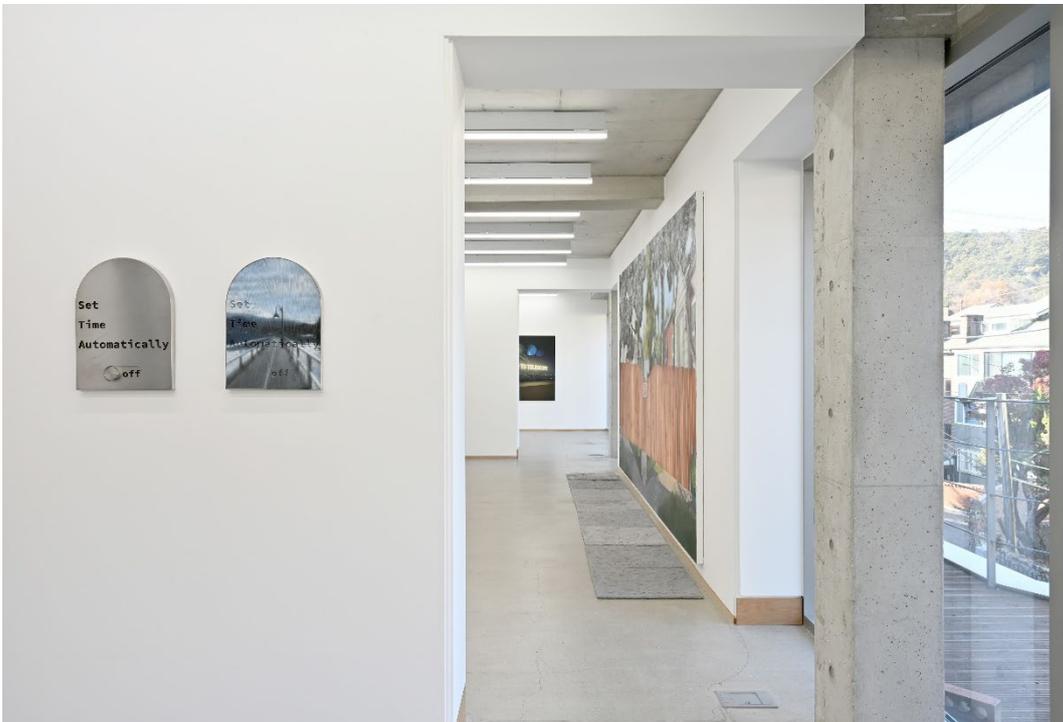
# 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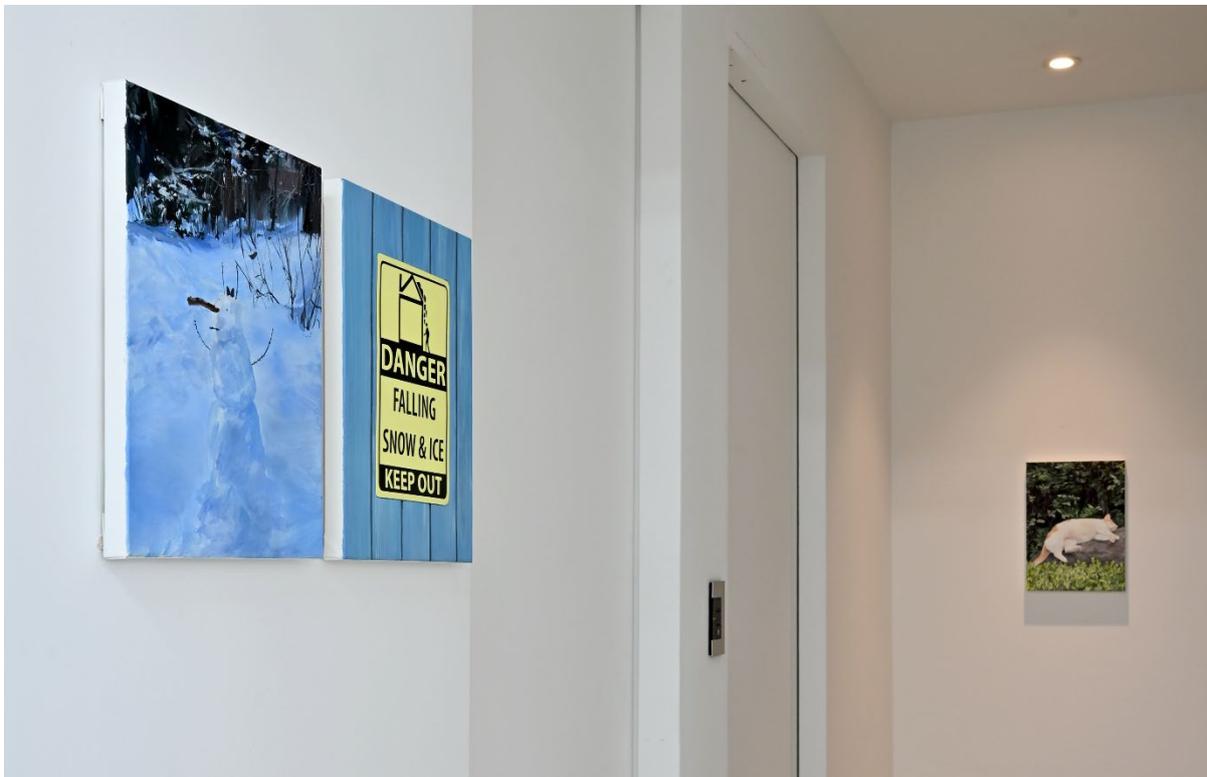
# A-L



# A-L



#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Seoul